

표고 톱밥재배 실용화 성공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농산촌신소득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연구해 온 참나무 톱밥을 이용하여 표고버섯을 재배 실용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임업연구원 산림미생물과 버섯연구팀(팀장·이원규 연구관)에 따르면, 표고버섯, 원자재인 참나무 원목의 지속적인 확보가 어렵고 가격이 비싸 표고버섯 재배자의 어려움이 많은데 착안, 참나무 톱밥 80%에 쌀겨 20%를 혼합한 표고 톱밥중균을 경기도 포천군 둔내면 적두리 장덕균씨에게 실연재배결과, 우량표고를 다수확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표고톱밥 재배는 최초수확은 접종후 6개

월로서 기존 원목재배 2년에 비하여 1년 6월이나 단축되며, 생산 원가도 1kg당 2,900원으로서 원목재배시 kg당 3,500원에 비하여 17%의 원가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목의 경우는 1m²에서 2년 주기로 생표고 100kg를 생산하나 톱밥의 경우는 6개월 주기로 375kg를 생산, 약 4배의 증수효과가 있으며 상품가치면에서도 원목을 이용한 버섯과 동등(kg당 6,000원)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UR에 대비한 농산촌신소득원개발사업으로 표고재배 희망농가에 확대 보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의 타용도전용시 대체조림비면제대상 대폭확대

산림청은 산림을 타용도로 전용할 때에는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대체조림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국가또는 공공기관의 공익시설등 극히 제한적으로 이를 면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농산촌 농어민의 소득관련사업과 저소득 도시민의 주거시설확보등에대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면제범위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밝힌 대체조림비 납입 면제대상을 보면,

- ① 버섯재배시설 ② 야생조수 사육시설
- ③ 농로 ④ 임산물의 생산, 가공등 영립과 관련된 시설 ⑤ 농업용고정식 온실 ⑥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 ⑦ 특정연구기관 ⑧ 자연휴양림 ⑨ 농어촌휴양지 및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⑩ 비영리법인이 농촌지역에 설치

하는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⑪ 주택개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⑫ 수도권 신 공항 건설사업 ⑬ 공공철도사업 ⑭ 청소년 수련시설 ⑮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등 농림축산물의 소득증대사업등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90. 7. 14부터 보전임지를 타용도로 전용시에는 m² 당 318원, '91년에는 m² 당 399원의 대체조립비를 징수하였

으나 '92년이후 준보전임지까지 확대하고 m² 당 481원, '93년은 m² 당 552원씩 징수해 오고 있다.

산림청이 이번 면제대상을 이처럼 확대한 것은 UR협상타결이후 어려운 농산촌 주민의 소득관련 사업을 보다 촉진시키고 투자비부담을 경감시켜 농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山林開發 基金 融資規模

(單位：百萬元)

主要項目	細部項目	金額	融資期間 (據置 / 償還)	利子率	
				貸下	貸出
計	計	19,000	年		
○資源造成		10,000			
	•造林林·育林	5,600		2%	3%
	-長期樹		35(20/15)	2	3
	-其他		15(10/5)	2	3
	-間伐		3(2/1)	2	3
	•林道施設 및 補修	4,400	15(5/10)	2	3
○所得源開發		3,200			
	•野生鳥獸飼育	700	3(2/1)	2	3
	•林木生產	1,500	3(2/1)	2	3
	•林產物收集	1,000	3(2/1)	2	3
○組合支援 및 後繼者育成		5,800			
	•林業協同組合育成	2,800	1(-/1)	2	3
	•林業後繼者育成	1,500	15(5/10)	2	3
	•篤林家育成	1,500	15(5/10)	2	3

때죽나무등 열매를 이용한 천연식물성 비누개발 성공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때죽나무와 생강나무등 열매에서 원료를 추출하여 피부에 자극이 적고 세척력이 뛰어난 식물성비누 신소재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임업연구원 남부임업시험장 조종수연구팀이 개발한 내용을 보면,

요즈음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합성세제(샴푸, 린스, 세탁용, 주방용세제등)는 기름과 먼지성분을 물속에서 잘 풀리도록 역할을 하는 물질(계면활성제)을 보통석유에서 추

출하고 세제의 풀림을 도와주기 위해 첨가제로 인산염을 사용하므로 물속의 산소를 없애지게 하여 물이 썩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어 천연식물자원을 이용한 무공해 비누개발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에 연구한 원료는 때죽나무, 유동나무, 생강나무, 생달나무, 머귀나무의 열매에서 우수한 세척원료를 추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물에 용해가 빠르고 향기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령수의 족보작성 특별관리키로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일제히 조사하여 전통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무는 족보를 만들어 천연보호수로 지정 특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93. 12. 15~'94. 1. 25까지 전국에서 100년이상된 나무중 가장 오래된 나무를 일제조사한결과, 느티나무등 89종에 303나무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전통과 문화적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89나무에 대한 족보를 만들어 천연 보호수로 지정 특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결과 천년이상된 나무는 모

두 10나무로서 강원 정성군의 주목나무가 1,800년, 강원 삼척군의 은행나무 1,500년, 경남 거창군의 이팝나무 1,100년, 제주 북제주군의 팽나무, 경기 미금시의 음나무, 서울 관악구의 굴참나무, 경남 하동군의 푸조나무가 각각 1,000년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북 울릉군의 향나무와 경남 울산군의 떡갈나무가 2,000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령나무로 밝혀졌다.

또한 나무높이가 가장높은 나무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1,200년된 은행나무로 높이가 50m로 나타났다.